

# 나라 준대도 안 받는 이가 도둑일리 없어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1)

일난왕이 세 생명을 구한 이야기

옛날 마천국에 일난이라는 왕이 있었다. 세간의 무상함을 깨닫고서 영화와 즐거움을 버렸다. 그리고 법복 한 벌과 발우 하나, 그리고 사문의 계율을 받아 신심에 들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이미 그는 도를 얻어 신통을 지니게 되었다. 가까운 숲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니 숲속에 깊은 구렁이가 보였다. 그 구렁이엔 사냥꾼과 까마귀 한 마리와 뱀 한 마리가 함께 빠져 있었다. 사냥꾼이 사슴을 쫓아 달리다가 그 구렁이 속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까마귀 한 마리와 뱀 한 마리가 함께 떨어져서 몸을 온통 다친 것이다. 모두는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일난왕이 그 모습을 모두 보고 한 걸음에 구렁이로 달려가 그들을 구했다. 목숨을 건진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들은 사문의 한량없는 어진 은혜를 받아 하늘의 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은혜를 갚겠습니다.” 일난왕이 말했다.

“나는 국왕으로 나라가 크고 백성도 많았으며 궁궐과 보물과 화려 등이 여러 나라에서 으뜸이었으므로 원한다면 무엇이든 다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문이 되었다. 소원은 부처님 도를 얻어서 중생을 교화하여 본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어찌 너희들 셋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큰일이라 하겠느냐?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각자 옛날 살던 데로 돌아가서 너희 친족들을 만나 삼보에 귀의하고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라.” 사냥꾼이 말했다.

“저는 세상에 여러 해 살면서 일찍이 착한 사람은 보았으나 부처님의 제자처럼 자기를 용서 하듯 남을 용서하고 중생을 구제하며 숨어서 이름을 알리지 않는 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라도 저희 집에 오셔서 공양을 받으십시오.”

그러자 이번에 까마귀가 말했다. “저의 이름은 발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언제든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뱀이 말했다. “이름은 장입니다. 만약 사문께서 어려움이 닥치시거든 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반드시 달려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 인사하고 각자 물러갔다. 어느 날 일난왕은 사냥꾼의 집으로 갔다. 사냥꾼은 멀리서 드가 오는 것을 보고 아내에게 말

했다. “저기 상서롭지 못한 사람이 오고 있소. 그 사람이 오거든 음식을 마련하되 천천히 차리시오. 그는 한낮이 지나면 먹지 않소.”

사냥꾼의 아내는 사문을 보고 불쾌한 안색을 드러내고 머뭇거리면서 음식을 장만하는데 헛된 말만을 지껄이다가 한낮을 지나 버렸다. 그러자 사문은 물러나와 산으로 돌아와서 까마귀를 불렀다. 까마귀는 사문의 목소리를 듣고 대답했다.

“어디서 오십니까?”  
“사냥꾼의 집에서 오는 길이다.”  
“공양은 하셨습니까?”  
“그가 공양을 차리는 중에 해가 이미 한낮을 지나쳐버려서 기다리지 않고 나왔네.”

자는 그 중족을 모두 멸할 것이다. 사문이 월명주를 사냥꾼에게 주었더니, 사냥꾼은 사문을 포박하여 왕에게 데리고 갔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이 월명주를 얻었느냐?”  
사문은 깊이 생각했다.  
“만약 그 주인을 말하면 반드시 온 나라의 까마귀가 몰사하게 될 일이니, 이것은 부처님의 제자가 할 일이 아닐 것이다.”

사문은 장형 천 대를 맞으면서도 왕을 원망하지 않고 자비로 서원했다.  
“저를 부처가 되게 하여서 못 괴로움을 제도하게 하소서.”

왕은 사문을 감옥에 가두고 다음 날 그를 죽이려 했다. 사문은 그때 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뱀이 듣고 사문에게 달려갔다.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사문이 까닭을 말하자 뱀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그리고 곱곰히 생각하다 말했다.

“제가 궁중으로 들어가서 태자를 물어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뱀은 신약(神藥)을 사문에게 주면서 말했다.  
“그것을 바르면 상처가 나을 것입니다.”

뱀이 밤에 궁중으로 들어가 태자를 물어 죽이는 죽사했고, 왕은 병을 내렸다.  
“태자를 살릴 수 있는 이가 있으면, 나의 나라를 나누어 주리라.”

그리고 왕은 감옥에 갇힌 사문 앞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때 사문이 말했다.  
“내가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사문을 풀어주자 사문은 뱀이 준 신약을 태자에게 발라주었다. 그러자 죽었던 태자가 깨어났다. 왕은 기뻐하며 사문에게 나라를 나누어주려 했다. 그러나 사문은 왕의 호의를 거절했다. 그러자 왕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나라를 나누어 주어도 받지 않는 이가 도둑질을 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사문에게 물었다.  
“어디서 구슬을 얻으셨습니까?”

사문이 자세히 설명하자 왕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사문은 정진하여 마침내 천상에 태어났다. 그때의 사문은 후에 석가모니부처님이요, 까마귀는 사리불이며, 뱀은 바로 아난이요, 사냥꾼은 조달(백반왕의 받아들)이 된다. (마일국왕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삽화·강병호

##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④



## 가을의 문턱에서

### 사돈의 선물

가을이다. 멀리서 날아온 편지 한 통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영평에서 온 사돈의 편지였다. 정성어린 손편지와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가을을 담아 보낸 편지였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눈(眼)이나 몸으로 느끼는 계절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시작되는 계절이란 생각을 했다. 올 가을은 사돈의 편지 한 통으로 시작했다.

사돈으로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7년이다. 그 동안 한 번도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지내왔다. 내가 홀몸해서가 아니라 사돈이 워낙 경우가 밝은 분이 다. 향을 담았던 종이에서 향냄새가 난다고 했더니, 밝고 끝은 사돈 덕에 명달아 경우 밝게 산다. 그렇게 한쪽에서 좋은 말과 좋은 시선으로 서있으니 짧지 않은 세월을 길지 않게 살아갈 수 있었다.

가을의 문턱에서 받은 사돈의 편지 한 통이 그토록 유난스러울 일은 아니지만, 거리에 땀구는 가을 낙엽이 사람의 마음을 불들듯이 사돈의 편지 한 통은 고마운 선물이다.

### 코스모스 사진을 선물로 보낸 사돈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 모두 '공부'

‘큰마음’, ‘깊은 마음’이 무엇인지 공부하게 된다. 사진 속에서 코스모스들이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서울의 딸에게 사돈 얘기도 할 겸 전화를 했다. 그곳에도 이미 코스모스가 가 있었다. 사돈이 보내준 코스모스 사진 얘기를 했더니 딸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여기도 코스모스 피었습니다.”

지난봄에는 우리나라외가 사돈을 부산으로 초대해 해운대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그때 사돈은 특별한 나들이였다며 고마워했었다. 편지에 그때 이야기를 쓰셨다. 그리고 그 고마움에 대한 마음으로 코스모스 사진을 보낸다고 했다.

언제부터의 인연일까. 부처님법 속에 살다보면 인연법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 그것을 따져 무엇 할까 싶지만 살고 또 살다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 인연의 순서를 궁금해 하다보면 삶이 조금이라도 곧아진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이드는 것도 그런 연유인 것 같다. 좋은 인연 속에 살고 있어 마음이 훈훈하고 감사하다.

곧 가을이 절정에 이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을을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 곳곳의 가을을 뒤지고 다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왠지 입가에 미소가 지나갔다. 나는 이미 가을을

만났기 때문이다. 사진 속의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김상희의 노래 ‘코스모스 꽃길’을 흥얼거렸다. 내년에 꼭 한번 이 사진속의 꽃길을 사돈과 함께 거닐며 사진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다.

### 할매들의 나들이

수원 봉녕사에서 열리는 ‘사찰음식 대향연’을 보러 도반들과 함께 갔다. 작년에 가려다 못 갔었는데, 나를 비롯해 도반들의 원이 깊어져 한 걸음에 달려왔다. 기차를 타고 수원으로 가는 길. 우리는 여고시절에 갔던 수학여행처럼 마냥 신이 났다. 각자가 준비해온 먹거리를 내놓고 서로 나누며 여행의 즐거움을 더했다. 나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버스에서 태워 거의가 사찰 참배 아니던 큰 스님들을 친견 공양하는 일로 바쁘지만 했었는데 이번엔 여유롭게 나설 수 있었다.

수원에 도착해 마중 나온 큰밭 근영이의 안내를 받으며 봉녕사로 갔다. 법당 참배 후 점심공양을 마치고 도량 이곳저곳을 돌았다. 얼마 전 인적하신 비구니계의 큰 어른 스님인 묘연 스님 생각이 났다. 조금 늦게 도착해 ‘사찰음식 대향연’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른 여러 나라 스님들과 발우를 들고 경배를 도는 탁발 행사에 동참했다. 베트남,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일본, 네팔, 티베트, 부탄 등에서 오신 스님들이 동참했다.

이렇게 한 곳에서 많은 스님들을 향해 작은 시주 금액이지만 인연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했다.

봉녕사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로 갔다. 다음 날은 음력 9월 초하루 법회가 있는 날이다. 우리는 조계사 법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마당은 신도들로 북적이고 법당에선 스님 예불소리가 들렸다. 마침 도량은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국화들이 뿜어주는 향기가 사찰의 운치를 더하고 가을기운을 더했다.

우리 일행은 각자의 서원을 위해 불전에 앉아 예경하고 법문도 들었다. 부처님 도량은 그곳이 어디든 마음이 편안하고 경건해진다. 많은 불자들이 함께 앉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여행으로 인한 피로가 한 순간에 날아가는 듯 했다. 법회를 마치고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다.

우리는 부산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원과 서울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도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세상이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볼 수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모두 ‘공부’라고 생각하니,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세상은 너무나 고마운 것이었다. 이야기꽃을 피우다보니 ‘꽃보다 할매’라는 TV 프로그램이 생각났다. 우리는 ‘꽃보다 할매’였다. 얼마 안 남은 생이지만 이토록 고마운 세상에 살고 있는 만큼 정성스럽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 지우스님과 함께하는 범음의 큰 메아리!

### ● 지우스님 독경 CD 신명나는 화심곡



- \* 지우스님 악력 \*
- 1967년 대구 안국사 보성스님을 은사로 출가되다
- 영산재 범음법대 바라밀 예술단장(법대:바라춤, 범복, 화심곡)
- 문화공보부 등록제411호 홍보위원
- 동국불교 전법대학교 졸업(1992년 1기생)
- 영남미술작가협회 영남총본부심사위원
- 한양미술작가협회(영남총본부 초대작가)
- 현 바라밀예술단 단장
- 2003년 3월해군 참모총장 대장 장정길 감사패
- 2006년 5월제8군단장 중장 이상위 감사패
- 2007년 2월 군수사령관 중장 양원모 감사패
- 2007년 10월 제1군사령관 대장 김태영 감사패
- 2013년 4월 경북직업훈련고 도소장 이경우 감사패

### ● 각종행사 사진



### ● 바라밀 예술단이 하는일

영산대제 및 산사음악회, 예수재, 49재, 구병시식, 차량고사, 안택 등 각종 불교행사를 깊은 신심으로 지극정성 여법하게 봉행하여 드립니다.

<작법무(바라춤, 나비춤) 화심곡>

### ● 법당마다 가득자리를 채운 지우스님 작품들

